

Merck, 액정 발견 125주년 행사

독일 화학회(GDCh)는 9월 초 액정 발견 125주년 기념 세미나를 뉘른베르크 콘그레스 센터에서 개최한다.

세미나에는 베른트 레크만 머크 보드멤버가 참석해 맞춤형 고객 솔루션을 가져오는 혁신을 주제로 연설도 진행할 계획이다.

세미나와 동시에 Merck의 액정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며 주요 응용제품과 함께 스마트 윈도우와 같은 미래형 디스플레이(Display)가 소개될 예정이다.

액정은 전력 소모가 적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어 평판 TV, 노트북, 태블릿, 스마트폰 등에 폭넓게 채용되고 있다.

베른트 레크만 보드멤버는 “현대 생활에 머크의 액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”며 “연구진의 호기심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객 중심 철학을 결합시킨 기술로 <Living Innovation> 슬로건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Merck는 독일화학회의 학회에서 채용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. <배정은 기자>

<화학저널 2013/09/03>